

2015년 우리나라에서의 예상치 못한 메르스 창궐은 우리의 의료시스템, 특히 감염병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금번 메르스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 약점이 지적되고 있고, 심지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의 질타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근본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기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메르스 대응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시스템이나 그에 대한 투명성도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여러 질병 중에서 특히, 사람의 감염병 중 70% 이상이 동물로부터 유래된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이들 질병의 방제와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던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시작되어 낙타를 숙주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져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사스 등도 이 범주에 드는 전형적인 질병에 속합니다.

현재에도 동물에서는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대처 경험으로 인하여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 발전되지 못하고 질병 대응 초기 단계에서 매번 허둥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역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도 의심 또는 확진 환자의 관리의 물론, 환자 접촉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의 격리, 응급실 운영, 입원실 통제 등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였고, 수의 분야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한 방역상의 오류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방역 행정의 문제점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방역은 바로 인간의 질병의 방역과 직결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전염병 발생 시, 의학과 수의학 분야 종사자가 함께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제2의 메르스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인의, 수의, 환경 등 질병 관리를 위한 하나의 관점(One Health)에서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함이 근본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5 다산컨퍼런스에서는 의료계, 수의계 및 보건 관련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질환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각국의 연구결과와 지식, 경험을 논하고, 이를 2박 3일 동안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값진, 좋은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015 다산컨퍼런스 대회장 김 재 홍

조직위원장 강 경 선

참가신청 Application

- ※ 모든 참가자는 Poster 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참조만 하여주시고, 현장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dasan.kofst.or.kr/2015/agriculture/sub_agriculture_01.php
- 문의 | 이정민 E-mail, mirine@snu.ac.kr Tel. 02-880-1200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10월 23일(금)까지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참석 등록비는 6만원입니다. (대한수의학회 등록자는 3만원)

- Organized by

- The Research Institute for Veterinary Scienc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pported by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all rights reserved (KOFST)